

담당부서: 기획조정실

담당자: 강효원 국제심의관

공보관실: ☎ 3480-1451



김명수 대법원장, 독일 방문 마치고 귀국

- ◎ 김명수 대법원장은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9. 5. 6.(월) 귀국했음.
- ◎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(BGH), 연방헌법재판소(BVerfG), 연방행정법원(BVerwG), 연방노동법원(BAG)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방문했음.
 - 2019. 4. 29.(월) 연방일반법원
 - 2019. 4. 30.(화) 프라이부르크 대학
 - 2019. 4. 30.(화) 연방헌법재판소
 - 2019. 5. 2.(목) 연방행정법원
 - 2019. 5. 3.(금) 연방노동법원
- ◎ 각 연방법원에서 미리 협의한 의제들에 대하여 약 2~3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논의했음.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.
 - 각 법원 공통: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할 역할과 성과,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,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
 - 연방행정법원: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
 - 연방노동법원: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의 역할
- ◎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음.

연방일반법원

※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(州) 칼스루에시(市) 소재

사진1: 왼쪽부터 림페르크 법원장, 김명수 대법원장



사진2: 양국 대표단 대담



프라이부르크 대학 방문

※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(州) 프라이부르크시(市) 소재

사진1: 왼쪽부터 금창록 프랑크푸르트 총영사, 쉬버 총장,
김명수 대법원장, 포셔 법대 학장



연방헌법재판소 방문

※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(州) 칼스루에시(市) 소재

사진1: 왼쪽부터 하르바르트 부소장, 김명수 대법원장, 쾨니히 재판관



사진2: 양국 대표단 대담



연방행정법원

※ 독일 동부 작센주(州) 라이프치히시(市) 소재

왼쪽: 레네르트 법원장, 오른쪽: 김명수 대법원장



연방노동법원

※ 독일 중부 튀링겐주(州) 에르푸르트시(市) 소재

사진1: 링크 부법원장과 대담



사진2: 양국 대표단

